

선포(2)

마태복음 24장 36-51절 말씀

<1>아무도 모른다

①

36 그러나 **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**

하늘의 천사들도,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

②

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

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

사람들이 먹고 마시고

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

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

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

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

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

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

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

③

42 그러므로 **깨어 있으라**

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

43 너희도 아는 바니

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

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

44 이러므로 너희도 **준비하고 있으라**

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

<2>개어 준비 - 두 종류 중

①

-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
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
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
- 46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
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
-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
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

②

- 48 만일 그 악한 종이
마음에 생각하기를
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
- 49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
- 50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
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
- 51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
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